

방글라데시의 섬유 산업

- BRICS 다음의 11개 신흥국 섬유 산업 중 큰 성장에 기대

방글라데시(Bangladesh)는 안정된 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의 흐름 속에서 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특혜 관세 제도(特惠關稅 制度)로 새로운 봉제 거점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 높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는 BRICS(Brazil, Russia, Indo, China 등) 다음으로 지목되고 있는 넥스트 11(Next 11)의 경제 발전 가능성이 큰 신흥 경제국 중에서도 눈에 잘 띄고 있다는 견해도 커지고 있다.

◎ 정치 정세는 불안하나 경제 성장은 안정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의하면 2007 ~ 2008년도(2007년 7월 ~ 2008년 6월)의 실질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國內 總生産) 성장률은 6.2%로 착실하게 늘고 있으며 2003/2004년도부터 5년간 연속으로 6%를 웃돌고 있다. 명목 성장률은 14.7%이며 GDP 총액 규모는 3조 2,179억 다카(Taka)(약 5조 1,500억 엔)에 달하고 1인당의 GDP는 554 달러로 처음으로 500 달러를 웃돌았다.

다만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방글라데시 은행은 2008 ~ 2009년도(2008년 7월 ~ 2009년 6월)의 GDP 성장률을 6.5%에서 6.2%로 낮추어 수정하였다. 아시아 개발 은행이나 세계은행의 예측은 6% 이하인 4.8 ~ 5.4%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경제 성장률은 4 ~ 6%로 안정된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농업 분야의 성장 회복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안정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섬유 제품 수출이나 해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이 크다는 불안 요소도 안고 있다.

또한 정치 정세(政治 情勢)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8년 말에 발령되어있던 비상사태 선언(非常事態 宣言)을 해제한 다음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하시나 아와미 연맹 총재(聯盟 總裁)가 새 총리로 선출되어 친 인도의 하시나 내각이 새로 탄생하였으나 앞날은 결코 밝지 않다.

2009년 2월에 다카 수도의 시내에 있는 국경 경비대(國境 警備隊 : BDR) 본부 내에서 대우 등에 대한 불만이 있는 국경 경비대 병사 3,000여 명이 육군 관계자들을 인질로 잡고 본부 내에서 농성하고 있었던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국경 경비대 중에 반(反) 인도(印度) 의식의 병사가 많은 것도 사건이 커진 이유 중의 하나가 되며 치안 측면에서는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섬유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

섬유 산업은 방글라데시 제조업 중에서 고용의 45%를 차지하며 경제를 받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글로벌화로 산업 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도 총 수출액 141억 달러 중에서 섬유 제품이 107억 달러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은 매년 약 15%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섬유 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직물로 된 셔츠가 주된 수출 제품이었는데 최근 3년 동안에는 니트 제품 생산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봉제품 수출액 107억 달러 중에 니트 제품이 55억 달러로 직물 제품 수출 52억 달러를 역전하였다. 니트 제품이

편성되면 바로 봉제하는 2공정 룰(2工程 rule)에 따라 구주로의 수출에 12.5%의 일반 특혜 관세 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직물 제품에서는 제직부터 시작하여 염색, 가공, 봉제의 3공정 룰(3工程 rule)이 아니면 GSP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제직이나 염색 가공과 같은 중류 산업이 아직 발전도상에 있으며 생지(生地)는 8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친 인도 정권이 되어 인도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인도로부터의 수입사(輸入絲) 관세도 내려감으로써 앞으로 니트 제품 생산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약점인 중류 산업에 대한 투자열도 올라가고 있다. 일본 섬유 기계 메이커도 주목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으로써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일본 기업을 생산 거점 구축하고 있어

2007년에 이도추 상사(伊藤忠 商事)의 홍콩 섬유 법인(香港 纖維 法人) 프로미넌트 어패럴(Prominent Apparel : PAL)은 방글라데시에서 이토 코퍼레이션 다카(伊藤 Corporation Dacca)와 합판(合辦)으로 자카드 니트(jacquard knit)의 모델(model) 공장 I.P.JAQ 니팅(knitting)을 설립하였다. PAL은 이제까지 중국, 아시아 각지의 생산 거점을 배경으로 일본 및 구미를 비롯하여 중동, 아시아 시장으로 생지나 제품 거래를 늘려왔는데 특히 드레스 셔츠 생지(dress shirts 生地), 제품에 대하여는 수익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비즈니스로 성장하여 섬유 회사(company)가 추진하는 패키지 비즈니스(package business)의 한 몫을 맡아왔다. 앞으로 구미를 주 대상(主 對象)으로 한 3국간 거래를 크게 늘리기 위하여도 방글라데시의 생산 거점은 중요하다. 2008년 11월에는 퍼스트 리테일링(First Retailing : FR)이 퍼시픽 텍스타일 홀딩스 차이나(Pacific Textile Holdings China), 크리스털 인터내셔널 차이나(Crystal International China), 아난

타 그룹(방글라데시)과 공동으로 방글라데시에 합판 회사 CPAT 프라이빗 (Private)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퍼스트 리테일링은 10%인 800만 달러(약 7억 6천만 엔)를 출자할 예정이다. 2009년 내에 봉제 공장을 가동하고 2010년에는 생지 공장과 방적 공장도 가동하게 될 것이다. 이도추나 FR 이외에도 상사나 SPA 등이 방글라데시를 차이나 플러스 원의 후보로 생산 거점을 빠르게 개척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